

도시관리계획(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안) 열람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365호)에 대한 의견서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 추진이 부산시민의 기본권인 방송 시청취권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실시계획인가(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제출합니다.

1. 방송사 전파방해 문제 해결 없는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에 반대함.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은 116m 높이의 전망대 건립이 핵심입니다. 전망대 인근에는 지역 지상파 방송3사(KBS부산, 부산MBC, KNN)의 송신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EBS, 교통방송, 불교방송 등 다수 라디오방송도 공동으로 송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봉수전망대 높이가 방송사 송신탑보다 높아 전파방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니다. 실제로 2023년 민간사업자, 방송3사, 한국해양대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서도 부산 남구와 영도구 지역에 광범위한 전파 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 시민의 시청권과 청취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파 방해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도시관리계획(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366호)에 따르면, 전망대 높이에 변동이 없어 전파 방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단체는 부산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파 방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반대합니다.

2. 전파 간섭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기술 검증 요구함.

부산시는 방송 3사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황령산 봉수전망대 전파간섭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해당 협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으며, 시민 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시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전파 방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사안 협의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취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야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협의는 이해당사자 간 협상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전파방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방송 3사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만을 근거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검증을 통해 전파방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때까지 인가를 보류해야 합니다.

만약 부산시가 이러한 객관적 검증 없이 조건부 승인 형식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전파방해 문제 해결과 객관적 검증이 없는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반대합니다.